

# 장마철 경사지 밭 토양유실, 맥주용 보리로 줄인다

## 파종 30일 뒤 토양 피복률 90% 내외... 초기 강우 피해 완화

우리나라 밭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경사지 농경지에서 맥주용 보리를 덮는 작물로 활용할 경우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토양유실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경사지 밭에서 작물을 재배할 때 맥주용 보리를 이랑 사이에 심으면 토양 침식을 줄이고 토양 보전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최근 강우 강도가 평년보다 18% 이상 증가하면서 집중호우에 대비한 토양 보전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가 국내 맥주용 보리 5품종인 '광맥', '호품', '흑호', '호단', '다이안'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파종 30일 후 토양 피복률이 87.6~91.0%로 나타나 대부분의 토양을 효과적으로 덮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경사지 감자 재배지에서 '광맥'을 활용한 실증 시험에서는 토양유실량이 해

당당 0.4톤에서 0.3톤으로 감소해 약 25%의 저감 효과를 보였다.

연구진은 덮는 작물이 빗방울이 토양에 직접 충격을 주는 것을 막고, 빗물이 토양에 천천히 스며들도록 해 침식을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표면을 흐르는 물의 속도를 낮춰 토양과 양분 유출

을 줄이는 효과도 확인됐다.

기존에 토양 보전을 위해 주로 활용되던 호밀은 종자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수입 종자의 의존도가 높고 비용 부담이 컸다.

반면 맥주용 보리는 종자 가격이 20kg 기준 3만6000원으로 호밀(4만8580원)보다 약 25% 저렴하며, 밭이 기간도 3~5일로 호

밀(6~10일)보다 짧아 토양을 빠르게 덮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식물체 크기가 호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주 작물과의 양분 경쟁이 적어 경사지 밭에서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맥주용 보리 종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limes.com



▲감자 이랑 사이에 맥주용 보리를 재배하는 모습

# 농협 NH오늘농사, 'Green Pick Day'로 농업 가치 확산 나서

## 2030 서포터즈와 함께 참여형 행사 개최

농협중앙회는 29일 서울 중구 본관 광장에서 국내 최대 이용자를 보유한 영농앱 'NH오늘농사'의 2030 서포터즈와 함께 참여형 오프라인 행사 'Green Pick Day'를 진행했다.

'Green Pick Day'는 참여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

(Pick)해 즐기는 점심시간 피크닉 형태의 행사로, NH오늘농사 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농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NH오늘농사 앱 기능을 쉽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형 프

로그램이 운영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NH오늘농사 퀴즈 이벤트 ▲농산물 시세 조회 체험 ▲농산물 및 오톤 굿즈 증정 이벤트 ▲커피 및 쌀 가공식품 제공 부스 등으로 구성돼 현장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참가자들은 원하는 농산물을 직접 선택한 뒤 NH오늘농사 앱을 활용해 실시간 시세를 확인하며 디지털 영농 서비스

기능을 자연스럽게 체험했다.

또한 뽑기 이벤트 등 다양한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가치와 소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운영에는 NH오늘농사 2030 서포터즈가 직접 참여해 프로그램 기획과 현장 운영, 홍보 활동을 맡았다. 청년 세대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소문형 콘텐츠를 바탕으로 현장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행사 분위기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었다.

조정래 기획조정본부장은 "이번 Green Pick Day는 NH오늘농사를 직접 체험하고 우리 농산물을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NH오늘농사 이용 활성화와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태영 기자  
ktya0712@daum.net



▲Green Pick Day 진행(농협 제공)

# 정부, 농·수산물 선제적 안전관리 실시

## 안전한 농·수산물 섭취 주의사항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이하 해수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대비하여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을 위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지방정부와 함께 농·수산물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이번 안전관리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고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여름철에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농·수산물과 최근 3년(23~25년)간 생산·유통단계에서

부적합 발생 빈도가 높았던 품목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온라인 소비 증가를 고려해 온라인 유통 농·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여름철 농·수산물의 안전한 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보관 온·습도 관리와 위생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소비자와 영업자에 당부했다.

곡류·견과류 등은 온도 15℃ 이하, 습도 60%이하에서 보관하고, 팥 등 겉질이 있는 제품은 겉질째 보관하는 것이 곰팡이 발생 방지에 도움이 된다. 곰팡

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부위를 제거하더라도 곰팡이독소가 남아 있을 수 있어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

날 것으로 섭취하는 횡감은 비브리오팀균 등 식중독균 예방을 위해 수돗물에 2~3회 깨끗이 씻고, 칼과 도마는 생식용과 비생식용을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특히, 간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비브리오팀균 예방을 위해 충분히 가열·조리하여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앞으로도 사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고온기 나방류 발생 증가, 저항성 관리 방제전략 주목



▲경농제공

## '고기능성 살충제' 필요성 확대

최근 기온 상승의 영향으로 원예작물 재배 현장에서 나방류 해충의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발생 기간도 길어지면서 농가의 방제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유충과 성충이 동시에 나타나는 세대 중첩 현상과 동일 계통 약제의 반복 사용에 따른 저항성 문제가 심화되면서 보다 체계적인 방제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나방류 해충은 발생 초기 밀도 관리에 실패할 경우 짧은 기간 내 피해가 급격히 확산될 수 있다.

일과 생장점을 가해해 생육을 저하시키고 과실을 손상시켜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만큼 초기 대응과 함께 저항성 관리 전략을 고려한 약제 선택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경농은 이 같은 현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나방류 방제 솔

루션으로 '프로큐어', '캡틴', '총채나방방'을 제안했다.

'프로큐어'는 알부터 유충, 약충, 성충까지 해충의 전 생육단계를 폭넓게 관리할 수 있는 종합 살충제다. 최근 동일 포장에서 다양한 생육단계의 나방류가 동시에 발생하는 사례가 늘면서 전 단계 방제가 가능한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제품은 우수한 침투이행성을 바탕으로 약액이 닿기 어려운 부위까지 효과적으로 작용하며, 긴 지속효과를 통해 초기 피해 확산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나방류뿐 아니라 총채벌레, 진딧물 등 흡즙성 해충에도 적용이 가능해 활용 범위가 넓다.

'캡틴'은 방제가 까다로운 나방 고령충을 대상으로 한 전문 살충제다. 유충이 성장한 이후 방제를

시작할 경우 약효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개발된 제품으로, 속효성과 지속성을 동시에 갖춘 것이 특징이다.

약제 처리 후 30분 이내 경련 증상을 유발하고 24시간 내 치사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나방류 외에도 총채벌레, 굴파리류, 노린재류 등 다양한 해충 방제에 활용할 수 있다.

시설재배지에서 자주 발생하는 총채벌레와 나방류의 복합 발생 문제를 겨냥한 제품도 있다. '총채나방방'은 총채벌레와 나방을 동시에 방제할 수 있는 살충제로, 신속한 밀도 감소와 함께 지속적인 증식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양한 원예작물에 등록돼 있어 현장 적용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limes.com

**농축환경신문**

1998년 10월 26일 창간 등록번호 서울 06693

(04071)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10, 성지빌딩 601호  
 기사제보 전화: 02-582-4016 팩스: 02-582-4002  
 광고신청 전화: 02-582-4016  
 이메일: press@nonguplimes.com  
 홈페이지: www.nonguplimes.com  
 자매지: 농업경제  
 발행인: 김대경  
 편집인: 김대경 | 인세인: 이경자  
 구독신청: 02-582-4016  
 구독료: 월 8,000원 / 년 96,000원  
 농협은행 301-0328-9561-51 (농축환경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 1단계 농장 진입로 생석회 도포

농장 진입로 폭 2m 이상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도포

### 2단계 농장 내부 매일 청소·소독

※ 소독약은 용법용량의 권장 희석배수 준수

### 3단계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 신발소독조 소독약은 2~3일 간격 교체

### 4단계 축사 내부 매일 소독

※ 소독약은 용법용량의 권장 희석배수 준수

- 1주일 간격 반복 도포, 비·눈 내린 후 즉시 재도포  
 - 도포된 생석회 위에 산성 소독제 살포 금지

- 농장 내부, 사료빈·퇴비사출해대 주변 매일 청소·소독  
 - 야생조류류 유인 요소(사료·폐사축·왕겨 등) 방지 금지

- 지정된 관리자 외 축사 출입 최대한 통제  
 - 축사 출입시 손 소독, 방역복·위생장갑·전용장화 착용

- 사람·가축에 직접적인 소독제 분사 금지  
 -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물품소독 철저 및 외부 반출 금지

농장에서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만이 가축질병 피해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